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2

함수형 문제 집중연습 (고득점 문제 훈련)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actice Book #2 함수형 문제
발행일	2025년 9월 18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79,800원
ISBN	979-11-994933-2-2(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2027 서문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actice Book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지난 Principle (상), (하)권을 거쳐오시면서 배우신 The LEET BIBLE의 LEET 공략법은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ET는 철저히 실전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LEET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The LEET BIBLE의 Practice Book은 이런 지점을 겨냥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2027학년도 버전에서 더 커리큘럼이 풍부해진 Practice Book은, 대략적으로 8년 전에서 3년 전의 기출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인 본 교재 기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7개년의 기출문제 대부분을 유형별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는 교재**입니다. 이로써 Principle (상), (하) + Practice Book 6종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2017~2023학년도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The LEET BIBLE 방식으로 풀이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부 교재별로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필수 사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은 **덤**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훈련’을 위한 과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 그 즉시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한 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찾아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LEE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본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워오셨던 LEET 접근방법을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LEET라는 시험이 수험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만큼, 본 교재는 원리서이지만 흔히 과목 교과서에서 볼 법한 포맷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세요.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 풀어볼 문제

2014학년도 추리논증 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정답을 가려낼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Review Note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view Note 양식은 리트바이블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 선별된 모든 문제에는 Review Note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LEET를 준

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LEET 고수가 적은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학습했던 선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Review Note를 통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렵구나”를 넘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actice Book의 단계에서는 정답 그 자체보다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대응 방식이 본서에서 소개하는 실전적 LEET 풀이법을 따랐는지를 되짚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Review Note를 교재의 예시와 비교하며 검토하면, 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함수형 문제 접근 설명서 8

1. Practice Book 집필 의도 10
2. 함수형 문제 유형의 접근법 12

CHAPTER

02

단어의 실행 유형 16

1. 단어의 실행 유형 개요 18
2. 단어의 실행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20

CHAPTER

03

계산 요구 유형 312

1. 계산 요구 유형 개요 314
2. 계산 요구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316

CHAPTER

04

실험 판단 유형 416

1. 실험 판단 유형 개요 418
2. 실험 판단 유형 기출문제 분석 및 풀이 420

정답지 494

CHAPTER

01

함수형 문제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

함수형 문제의 정답률은
개별 문제 분석보다
시험 운영의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1 장

함수형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1 함수형 Practice Book의 집필 의도

함수형 문제는 LEET시험에서 20번 이후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으로, 시간이 걸리고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제시된 조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에 “함수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함수형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접근 중 가장 잘못된 공부법 중 하나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양치기”**입니다. 수험생들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해당 유형에 익숙해지고, 풀이 속도가 향상되며, 실수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PS AT, 수능 문제까지 총동원하여 문제를 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양치기 공부법은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함수형 문제의 정답 여부가 단순히 그 문제 자체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그 시점의 상황, 순간의 집중력과 체력과 같은 변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실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문제에 온전히 집중할 때 가능한 일이며, 이런 식으로 한두 문제씩 따로 푸는 연습은 순간적인 집중

CHAPTER

02

단어의 실행 유형



The
LEET
BIBLE™

“

단어의 실행 유형은
문제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변수를
긴장감 속에서 집중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2 장

단어의 실행 유형

The LEET BIBLE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어진 문장을 꼼꼼히 읽고 정확하게 해석해 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득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경계하고자 “단어의 실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해봅시다. 문제에 등장하는 단어나 표현이 일상적이고 익숙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단어나 문구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와 역할에 주목하는 자세야말로 형식적 사고의 틀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과 변수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 짓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단어의 실행” 유형을 따로 분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풀다 보면 문제에 담긴 정보를 피상적으로 읽어 넘기거나, 중요한 변수를 간과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일은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우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 제시된 조건들을 간단한 기호나 도식으로 정리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

각화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수형 문제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틀리는 것이 당연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시험 운영 높은 정답률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모두 풀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를 풀 시간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난제를 만났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수의 발견 과정이 핵심입니다. 출제자가 진짜 물어보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오히려 실행이 쉬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0.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계약 위반을 두고 갑과 을이 다투는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둘 사이의 계약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조건은, 첫째, 계약이 특정한 행위 X를 금지하고, 둘째, 계약 당사자가 그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쟁점은 다음 두 쟁점에 달려 있다. 하나는 이 계약이 을로 하여금 행위 X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을이 실제로 행위 X를 했는지 여부이다.

세 명의 판사가 내린 판단은 각각 달랐다. 판사1은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을이 행위 X를 했다고 본다. 판사2는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을이 행위 X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3은 을이 행위 X를 한 것은 맞지만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

각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을 따른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만약 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수가 같다면,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세 명의 판사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는 판사1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고 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 곤란한 상황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 다툼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보 기>—

ㄱ. 을은 자신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ㄴ.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판사3이 ‘이 계약은 행위 X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면,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ㄷ.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판사 한 명을 추가하여 네 명이 판단하도록 했다면,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계약 위반을 두고 갑과 을이 다투는 소송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둘 사이의 계약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조건은, 첫째, 계약이 특정한 행위 X를 금

지하고, / 둘째, 계약 당사자가 그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쟁점은 다음 두 쟁점에 달려 있다. ① 하나는 이 계약이 을로 하여금 행위 X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지 여부이고, ② 다른 하나는 을이 실제로 행위 X를 했는지 여부이다.

위 문단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차원을 구획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문단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이해에서 각인시켜야 할 문장들이 바로 이러하고, 이항관계의 기본형에 해당하는 제시문들은 위와 같은 정보들이 곧바로 보일 수 있도록 제시됩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결론 차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한 논의를 별개로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계약이 특정한 행위 X를 금지하는가
두 번째	계약 당사자가 그 금지된 행위를 하는가
계약 위반이라는 결론	

일단 위 두 개의 차원에 대한 논의는 별개라는 생각 속에서 정보를 습득해 나가야 합니다.

세 명의 판사가 내린 판단은 각각 달랐다. 판사1은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 을이 행위 X를 했다고 본다. 판사2는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 을이 행위 X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판사3은 을이 행위 X를 한 것은 맞지만 / 이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

두 번째 문단을 통하여, 함수형 문제의 전형으로 정보를 정리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각각 판사 1, 2, 3에 대한 정보들을 앞서 정리한 계약이 금지하는지 여부 차원, 금지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 차원과 연결지어 정리해야 합니다.

	금지여부	금지행위 여부	
판사1	○	○	
판사2	○	X	
판사3	X	○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답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나 우리가 정리한 내용만으로는 결론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문단의 정보를 읽어 나갈 때, 그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가 설정됩니다. 즉, 새로운 차원에 대한 논의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분명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각 쟁점에 대해서 / 다수의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을 따른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만약 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수가 같다면,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세 명의 판사 중 /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는 판사1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1)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고 / 2) 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 다툼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단에서 수험생들은 자의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판사 1에 대한 정보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핵심은 ㉠라는 기호를 통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는 일상어로 변수가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개념은 더 이상 일상어로 다가오면 안 되고, 추후 변수로 활용할 준비를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를 한 분과 하지 않은 분들 간에 ㄴ 선지와 ㄷ 선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선지를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을은 자신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 주장하였을 것이다.

ㄱ 선지는 을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ㄱ 선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는 전형적인 선지였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로 선언하기” 유형으로서 연습에 의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즉, ㄱ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중략)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이 계약을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쟁점은 / 다음 두 쟁점에 달려 있다. 하나는 이 계약이 을로 하여금 행위 X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지 여부이고, / 다른 하나는 을이 실제로 행위 X를 했는지 여부이다.

계약 위반 여부에 관한 을의 입장은 앞서 언급된 쟁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금지여부	금지행위 여부	계약 위반 여부
①	○	○	위반
②	○	X	위반 X
③	X	○	위반 X
④	X	X	위반 X

을이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을은 자신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꼭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을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선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을은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선언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였습니다.

ㄴ.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 판사3이 ‘이 계약은 행위 X를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 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면,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판사3이 자신의 주장을 변경했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으나 을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곧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계약 위반에 대한 다수결의 의견과 일치하므로, ㉠과 같은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ㄴ은 맞는 선지였습니다. ㄴ 선지까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ㄷ.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 판사 한 명을 추가하여 네 명이 판단하도록 했다면, /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ㄷ 선지에서 수험생들의 실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의미합니다. LEET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어려운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곤란한 상황”의 정의를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곤란한 상황”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각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판사들이 내리는 판단을 따른다는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만약 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수가 같다면,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세 명의 판사 중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는 판사1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1)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하고 2)을이 행위 X를 한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이 다툼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한 명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사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툼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판사가 한 명이라는 조건을 맞추어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무조건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경우의 수를 늘리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주어진 사례 자체가 “곤란한 상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즉 판사 1명만이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자체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지	행위	위반
판사 1	○	○	○
판사 2	○	X	X
판사 3	X	$\text{○} \Rightarrow \text{X}$	X
판사 4	○	$\text{○} \Rightarrow \text{X}$	X

위 표를 그대로 작성해 보면, 즉 전제 상황으로 한 명만 위반한다는 경우를 전제로 표를 그리려고 하면, 실제로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 위반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이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 ㉠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발생한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선지였으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표를 그리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은 표를 그리고 나서도 이러한 풀이 방식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위 차원의 경우의 수를 실행할 때에도, 내가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실제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주어진 조건과 사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함수형 문제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본서를 통해 계속 연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18학년도 추리논증 10번

POINT

▶ 놓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 시키면 시키는 대로 & 어느 정도 시간 투입해야
'곤란한 상황'이 무엇인지는 돌아가서 확인해야
- ㄱ : 모르는 데 선언하는 대표적 유형. 행위 X를 하지 않는 것 말고도 그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
- ㄱ 선지 대표적인 오답구성 ⇒ 모르는데 하나로 선언하기
- 시키는 대로 하라 ⇒ 시간(표 그리는데) 걸려도 된다
ㄴ & ㄷ : 시키는 대로 하기 (표 그려서 해결. 손이 눈보다 빠르니까)

차원설정 - 금지/행위. 각각 판단을 표로 작성 후 풀이

WRONG

▶ 처음 풀이의 사고과정이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ㄱ의 곤란한 상황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 다시 이해하는 .. 뭐 때문에?

19년도 26번 온실가스 문제와 16년도 24번 정치성향 문제가 떠올랐다. 이 두 문제보다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행하는데 있어 어렵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느낀 건 실행은 제시문에 나온 해당 단서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다.

▶ 대용이 기본이다. 주어진 것들의 활용. 흐릿할 것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한다.

선생님이 정치 성향 문제에서 5/8이 어떻게 나왔을지 보조선을 우연히 긋지 않고 '가장 가까운 정치성향을 공표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가까운 거 하나씩 가져가는 실행을 해서 5/8의 개념을 찾은 것처럼 이 문제에서 '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판사는 한명 뿐이다'라는 변수를 바탕으로 실행했으면 좀 더 빨리 경우의 수를 추려낼 수 있었을 것이다.

▶ 정확합니다.

전자는 뭐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를 때 문제를 푸는 입구를 찾는 방법이었었고 후자는 목적성을 가지고 돌아가자는 뜻으로 쓰였다만 둘 다 결국 변수 뽑아서 거기서부터 실행하는 작업이다. 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작업이기에 시간 줄이는 문제에서 시간 확보를 꼭 해야겠다.

▶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문제들의 정답률을 올리는 방법은 시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금지하는지/했는지

	금지	실행	계약 위반
1	o	o	o
2	o	x	x
3	x	o ⇒ (ㄴ)X	x

(ㄱ) 계약 위반이 되는 조건은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할 것 + 을이 금지된 행위 X를 한 것 모두를 충족시켜야하므로 을은 둘 중 하나만 안 했다고 주장하면 됨. 따라서 자신은 행위 X를 했지만,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음.

(ㄴ) 판사3이 주장을 바꿨다면 다수결을 따르므로 계약이 행위 X를 금지하나 을이 행위 X를 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날 것.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다수결의 의견과 일치하므로 ㉠은 발생하지 않음.

(ㄷ) 판사 한 명을 추가하더라도

	금지	행위	계약 위반
1	o	o	o
2	o	x	x
3	x	o	x
4	x	x	x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계약 위반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다수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 ㉠은 그대로 발생함.

▶ 다시 돌아가서 확인이 중요했던 문제! 올랐습니다!

각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의 수가 같다면,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ㄱ	모르는데 하나로 선언하기	1.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행위 X를 하지 않았다 ∨ 행위 X가 금지되지 않았다) 둘 중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로 선언하기 (빈출 오답구성) 2. 다른 학생 풀이법 비슷한 건 다른 거다. 위반 ≠ 행위. 을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 '행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 ㄱ : 모르는 데 선언하는 대표적 유형. 행위 X를 하지 않는 것 말고도 그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 대표적인 오답 구성																				
ㄴ	꼭꼭 실행하기	<table data-bbox="464 1127 1143 1286"> <tr> <th></th><th>금지</th><th>행위</th><th>위반</th></tr> <tr> <td>판사 1</td><td>O</td><td>O</td><td>O</td></tr> <tr> <td>판사 2</td><td>O</td><td>X</td><td>X</td></tr> <tr> <td>판사 3</td><td>X</td><td>O⇒X</td><td>X</td></tr> <tr> <td></td><td>O</td><td>O⇒X</td><td>X</td></tr> </table> • 시키는 대로 하라 ⇒ 시간(표 그리는데) 걸려도 된다 ㄴ & ㄷ : 시키는 대로 하기 (표 그려서 해결. 손이 눈보다 빠르니까) 두 쟁점에 따라서도 위반이 아니며, 위반 차원에서 위반이 아니기에 곤란한 상황이 아니다.		금지	행위	위반	판사 1	O	O	O	판사 2	O	X	X	판사 3	X	O⇒X	X		O	O⇒X	X
	금지	행위	위반																			
판사 1	O	O	O																			
판사 2	O	X	X																			
판사 3	X	O⇒X	X																			
	O	O⇒X	X																			
ㄷ	꼭꼭 실행하기	위 표에서 판사 4가 금지 X, 행위 X 라고 추가되면 가장 경력이 오래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금지 쟁점은 O, 행위쟁점도 O but 위반차원은 X가 된다.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들어선다.																				